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4호 [루게 제2722호]

주체 111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음력 10월 5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도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10월이 전하는 절세위인의 불멸의 헌신



격정으로 가슴높뛰고 사랑으로 눈곱젖어들던 10월이 저물어가고있다. 이 땅에 래를 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는 조선로동당, 이 세상 그 어떤 천지풍파가 밀려온대도 언제나 백승의력 사만을 아로새겨온 위대한 어머니당의 생일이 아로새겨진 10월이다.

그래서 조선로동당이란 그 부름 조용히 외워만 보아도 그지없는 행복으로 가슴 부풀어오르고 끝없는 긍지로 심장을 끓이는 이 나라 인민들이 아니던가. 온 나라 인민들은 끓어오르는 감격속에 다시금 되새겨보고있다. 어머니당의 창건 77돐을 맞는 뜻깊은 이 10월에 새겨진 잊지 못할 불멸의 화폭들을.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을 전도양양할 당으로

10월 17일. 이날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역사적뿌리가 내린 뜻깊은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90여년전인 주체15(1926)년 10월 17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라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다. 이로써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뜻깊은 날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찾으시였다. 못잊을 그날 교내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비와 혁명사적교양실을 비롯한 학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고 교

육실태도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교직원, 학생들앞에서 《새시대 우리 당건설방향과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의 임무에 대하여》라는 역사적인 기념강의를 하시였다. 기념강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혁명앞에 나선 무겁고도 방대한 과업뿐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적으로 맞는 새시대 조선로동당의 5대건설방향을 새롭게 제시하시였다.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율건설, 작풍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5대건설방향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독창적으로 발전풍부화시킨 새시대 전당강화발전의 휘황한 진로이며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당건설 대강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시대 조선로동당의 5대건설방향을 제시해주시심으로써 최강의 당건설사상을 기록하는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을 더욱 실속있게 추진하고 당의 면모와 기풍을 확립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업무를 확신있게 수행해나갈수 있는 백년, 천년의 담보가 마련되였다. 중첩되는 도전과 장애를 과감히 깃부시며 국가부흥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시기에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사에 특기할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은 온 나라 인민의 가슴가슴은 지금 끝없는 격

정과 무한한 환희에 넘쳐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지난 10년간 비범한 예지와 불면불휴의 사상리론활동으로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백과사전적인 지침들을 마련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진군길에서 조선로동당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으며 역사적인 당 제8차대회 이후에만도 지도계선별, 공작 부문별대회와 강습들을 순차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당사업을 혁신해나가기 위한 활동방향과 과업들을 뚜렷이 명시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이번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혁명의 새시대 당건설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으로써 《E.C》가 결성된 역사적인 날을 새로운 출발선으로 하여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을 전도양양한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을 전도양양한 당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에 새기신 거룩한 령도의 자욱은 조선로동당을 사회주의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잠모부, 정예화된 강철의 전위대로,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추동한 역사적행보로 조선로동당의 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나라의 핵심공간들을 육성하는 원종장으로

최근 공화국의 신문, 통신문, 방송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두차례에 걸쳐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고 원아들을 태양의 열과 정으로 따듯이 보살피시며 주체혁명의 혈맥을 굳건히 이어 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혁명활동소식을 보도하였다. 나라의 모든 사업을 돌보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5돐 기념행사에 참석하시며 뜻깊은 기념연설을 하시신 경애하는 원수님, 주말에 꼭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또다시 친금같은 시간을 내시며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고 원아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인자하신

영상을 우리르며 온 나라 인민들은 뜨거운 격정으로 두 볼을 적시였다.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은 장장 75년의 연혁사를 자랑하는 주체혁명의 원기둥이며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위업을 떠메고 나가는 핵심공간들을 육성하는 원종장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뜻깊은 기념연설에서 말씀하신것처럼 만경대혁명학원 졸업생들가운데서 공화국정부의 수반이 3명, 조선인민군 원수가 3명 나오고 3중영웅, 2중영웅들을 포함하여 수십명의 영웅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은 혁명가유자녀들에 대한 당과 수령의 신일이 얼마나 크고 그들을 국가의 대들보로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품을

들여왔는가를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기념연설을 들으며 사람들은 혁명의 원기둥, 원피줄기인 혁명학원의 학생들을 문무를 겸비한 견결한 혁명가, 당의 교내자, 후비대로 튼튼히 키우기 위해 기술이시는 그이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에 대해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았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혁명학원 원아들을 얼마나 중시하시는가 하는것은 주말에 꼭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며 또다시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신 그날에 새겨진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못잊을 그날 만경대혁명학원에 또다시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아들을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학생들의 격률 및 수영훈련도 보여주셨다. 또한 졸업반 학생들의 권총실탄사격도 보여주시면서 학생들이 명중사적으로 편이러 만점을 쏠 때만 마다 못해 대견해하시며 환한 미소속에 인참으로 박수도 쳐주시고 그들과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그토록 오랜 시간을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해 바치기도 못다 주신 사랑이 있는 신듯 식당에 들리시며 원아들의 식생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며 몸소 밥맛과 죽맛도 보여주시고 원아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음식을 어떻게

가공했을 때가 제일 맛이 있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시며 원아들의 식생활을 그들의 구미와 영양학적요구에 맞게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기와 알, 물고기와 낚새, 다시마와 젓갈, 기초식품 등을 정상적으로 충분히 보충해줄도록 은정 어린 조치를 취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다심하신 그이의 사랑을 받아안은 원아들도, TV 화면으로 감격의 화폭들을 바라보는 온 나라 인민들도 위대한 어머니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으로 가슴을 들먹이였다. 뜻깊은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경대혁명학원을 교유교양에서 전국의 본보기학교, 모든 교육단위가 아득히 올려다보는 학교의 학교! 진정한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교로 만드는것이 우리 당의 혁명학원강화의 원칙적요구이라고 하시였다. 모든 교육단위가 아득히 올려다보는 학교의 학교! 진정한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자욱은 혁명가유자녀들을 조선혁명의 참다운 계승자들로 길들이 내세워주시며 성장의 걸음걸음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후대사랑의 위대한 령정이다.



《위대한 어머니당의 뜻깊은 생일을 맞으며 이처럼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크나큰 사랑의 선물인 우리 인민에게 또다시 안겨졌으니 세상에 우리 당의 품보다 더

따사롭고 자애로운 품은 없습시다.》 《가정주부로서 남새격정이 컸는데 우리 녀인들의 속마음까지 그토록 속속들이 헤아려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삼가 큰절을 올리고싶습니다.》 《인민과 한 약속,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어갈 결심을 보아야 한다는것을 확고부동한 의지로 내세우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의 하늘같은 인민사랑을 떠나 동해기슭에 펼쳐진 거대한 온실바다는 생각할수 없습시다.》 ...



인민이 받아안은 사랑의 선물, 번영의 재부

의 하늘같은 인민사랑을 떠나 동해기슭에 펼쳐진 거대한 온실바다는 생각할수 없습시다.》 ... 끝간데 없이 펼쳐진 동해의 남해바다 편포온실농장. 이를 바라보며 터치는 인민들의 격정의 목소리이다. 바라볼수록, 안아볼수록 밀물처럼 안겨드는 어머니사랑 일진대 어찌 인민들 눈곱적이지 않음의 고마움의 목소리 터치지 않겠는가.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해 밀사복무하는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생일날에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사랑의 선물인 여서 준공식장에 홀려넘친 감격의 파도 그렇듯 세차게 일렁인것이다. 사람들 누구나 지나온 230여 일을 격정속에 떠올린다. 나라의 중요한 공업도시, 과학도시인 함흥시와 함경남도인민들의 남새보장문제를 언제나 증대사항으로 판

심하시며 부지확정과 령량편성, 설계와 시공, 자체보장 문제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주시고 몸소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며 건설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으로 홀려온 230여일. 그리고 당중앙의 특별명령을 받아안은 군인건설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확공의 첫삽을 뜨셨던 장소의 흙을 담은 붉은 주머니와 피끓는 심장으로 쓴 맹세문을 가슴에 품고 낮에 밤을 이어 백열전을 벌리던 잊지 못할 나날들을. 그 230여일동안에 280정보의 드넓은 부지에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된 850여동의 수경 및 토양온실들과 지방의 특색을 살린 1000여대의 살림집, 학교, 문화회관, 종합봉사시설 등이 구획별로 이채롭게 조화되어 새시대의 문명을 과시하는 웅근 하나의 대농장지구, 사람들이 리

상으로만 그려보던 거대한 온실농장이 세상에 보란듯이 일떠섰다. 하기에 진정한 인민의 당, 어머니당을 우리르며 인민들이 터치는 만세소리 하늘땅을 진감하며 끝없이 메아리 친것 아니겠는가. 대규모남새생산지인 편포 온실농장 준공식날 가없이 펼쳐진 온실바다를 오래도록 부강하시며 대규모의 현대적 온실농장이 일떠섬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에서 큰 몫을 맡아 수고 많은 함흥시의 로동계급과 과학자들, 함경남도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정상적으로 공급할수 있게 되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미소를 인민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것이다. 정녕 동해에 펼쳐진 온실바다는 위대한 어머니당, 조선로동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준 또 하나의 사랑의 선물이며 번영의 재부이다.

* 잊지 못할 10월에 새겨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자욱자욱을 되새겨볼수록은 나라 인민들은 위대한 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눈곱적진다. 이 한밤도 먼길 가실 원수님 생각하며 우리 마음 자욱자욱 간절히 따라섭니다. 우리 운명 우리 행복 원수님께 달려있기에 아찔처럼 소원은 하나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 사랑하는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어제도 오늘도 위민헌신의 길을 취입없이 걸고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정녕 공화국의 10월이 전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행보는 이 땅에 무수히 새겨지는 인민사랑의 전설들과 더불어 후세에 길이 길이 전해질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